뮤지엄헤드 Museumhead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 층
1F, 84-3, Gyedong-gil, Jongno-gu, Seoul
[보도자료] 배포: 2026 년 10 월 20 일

뮤지엄헤드, 〈Problems In Need〉 개최

전시 제목	Problems In Need
참 여	남웅, 서동진, 윤원화, 이혜인, 최태훈, 황재민 김동희, 반재하, 양승욱, 이예원, 정주원, 최미애
전시 기간	2026 년 10 월 22 일 – 11 월 21 일
전시 부문	회화, 조각, 영상, 설치 (신작 및 구작)
전시 장소	뮤지엄헤드,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 층 및 야외
운영 일시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주최 및 주관	뮤지엄헤드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6 시각예술 창작주체

뮤지엄헤드에서 10 월 22 일부터 11 월 21 일까지 〈Problems In Need〉를 개최한다.

뮤지엄헤드는 새로운 프로그램 〈Problems In Need〉(이하 〈PIN〉)을 열며, 미술이 직면한 동시대적 '문제'가 무엇인지, 동시대 미술에서 '문제적인' 장면의 연출은 어떻게 가능한지 질문한다. 섣불리 해결책을 찾기 전에, 시대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것의 구성을 드러내기를 제안한다.

이를 위한 비평의 장을 열며, 2026 년 〈PIN〉은 남웅, 서동진, 윤원화, 이혜인, 최태훈, 황재민을 비평가로 초청했다. 이들은 각각 동시대 한국 미술장에서 다뤄 마땅한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를 함께 탐구할 작가를 추천한다.

추천된 작가 양승욱, 반재하, 김동희, 정주원, 이예원, 최미애는 각자의 작품을 제기된 문제의 맥락 속에 놓아보고, 또 역으로 문제를 증폭시켜 본다.

이곳에서 관객은 어떤 질문을 가져가게 될까? 그 질문은 또 어디에 닿게 될까? 관심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장(“Problems In Need”)으로 지금 이곳을 설정한다.

[첨부]

1. **전시 서문 (전문)**
2. **작가 소개 및 주요 작품 소개**
3. **전시 포스터 (파일 별첨)**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홍보 목적으로만 전시 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 전시 전경 및 작품 사진은 본 보도자료 마지막 페이지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문의 T. 02-742-9146 / E. museumhead.seoul.team@gmail.com

추가 문의	**대표 소셜 미디어**
책임큐레이터 허호정 hojeong7534@gmail.com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useumhead_/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useumheadd

[첨부] 1. 전시 서문 (전문)

문제는 곤경에 처해 있다. 해결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문제의 정체를 파악하려 하지 않으며, 정작 문제의 구성체들은 주목되지 않아서다. 고립무원의 문제. 문제는 그 자체로 관심을 필요로(in need) 한다.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새삼 지적해야 할 것은, 미술 실천이 문제를 숙고하기 전에 문제의 해결사를 자처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미술의 자리가 문화로 대체될 때 성급히 대중을 찾았고, 시대의 비극 앞에 올바름을 내세웠고, 악화일로를 걷는 재난 앞에 지속가능성의 구호를 되풀이했으며, 폭력 앞에 애도의 절차부터 밟았다. 그러는 사이, 의심하고 되묻는 일은 잊히는 중인지도 모른다.

뮤지엄헤드의 비평 프로그램 〈Problems In Need〉 (이하 약칭 〈PIN〉)는 시대와 장(場)의 '문제들'을 집어내는 데서 시작한다. 오늘 이곳의 미술장에서 주목되어야 할 문제, 나아가 함께 돌봐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찾아본다. 그리고 해결을 통해 그것을 소거하기보다 붙들고 늦추며 질문을 덧대기를 제안한다.

이때, '비평'은 다름 아닌 문제 제기의 형식이자 방법이다. 비평은 즉각적인 해결과 섣부른 봉합을 유보하며, 문제를 또는 그것을 관통하거나 매개하는 미술을, 아니면 그 자체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는 미술을 밝히고 더듬는다. 흔히 이해되는 바와 같이 비평은 전시·작품·작가라는 대상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PIN〉에서 비평은 판단에 앞서 미술 실천과 함께 문제를 끌어안고, 거기 동행하거나 개입한다.

2026 년 〈PIN〉은 남웅, 서동진, 윤원화, 이혜인, 최태훈, 황재민 (총 6 인)을 비평가로 초청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각각 동시대 한국 미술장에서 함께 다뤄 마땅한 '문제'를 설정하고, 또 그 문제를 함께 탐구할 작가를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각 비평가는 일종의 "책임비평" 형식으로 글을 쓰고,[1] 추천 작가와 대화에 임하며, 각자가 설정한 문제를 좁혀 간다. 비평가에게 추천된 각 작가는 제기되는 문제의 맥락 속에 자신의 작품과 작업 세계를 놓아 보고, 역으로 작품이 매개하는 문제를 증폭시켜 본다.

10 월 22 일에서 11 월 21 일, 주어진 기간 동안 전시장에는 비평가 6 인의 원고와, 작가 양승욱, 반재하, 김동희, 정주원, 이예원, 최미애의 작품 및 자료를 함께 비치한다. 전시는 방향이 다른 작업들을 애써 묶어 하나의 흐름 같은 것을 보여주기보다, 동시대성을 질문하는 '문제적' 태도의 유사성만을 풍기도록 하고 각각을 독립된 섬으로 간주한다. 전시 기간 중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는 〈문제적인 대화〉 (비평가×작가 또는 초청 대담자 토크)가 마련되어 있다.

서로의 관객이자 질문자로서 우리는 문제를 마주한다. 그리고 문제 자체를 이 특수한 시공간으로 연장하며, 그 구체적인 노드들을 확인한다. 자, 당신 마음속에 남은 질문은 무엇인가? 그것은 또 어떤 다른 문제로 가 닿고 있는가.

허호정 (뮤지엄헤드 책임큐레이터)

---

[1] 본 기획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서울미술관 (1981-2001)이 개관 당시부터 진행한 프로그램 《문제작가전》에서 착안했으며, "책임비평"이라는 용어는 해당 프로그램을 개괄한 다음의 논문에서 가져왔다. 그러나 과거의 "책임"이 판단의 책임이었다면, 〈PIN〉은 이를 문제에 끝까지 응답하는 과정의 책임으로 옮겨오고, '문제'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역사적 선례를 비틀고 재해석한다.
"이 제도는 서울미술관이 개관하는 1981 년의 《'81 문제작가전》부터 8 회에 걸쳐 진행되어 《'88 년 문제작가전》까지 개최된다." "창작과 비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문제작가전》 [은] (...) 평론가 1 인이 작가 1 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 비평가들의 논점 및 기준의 차이를 드러내어 책임비평의 토대를 닦고자 하였다는 것은 평론이 그 지향점과 목소리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 것이었다.": 기혜경, 「서울미술관 전시와 80 년대 형상미술의 전개—《문제작가전》을 중심으로」, 『미술문화연구』 제 29 호 (2024), 63-90.

[첨부] 2. 참여자 및 출품작 소개 (비평가-추천작가 순)

남웅 NAM Woong

인권운동과 더불어 미술평론을 한다. 2011 년 제 4 회 플랫폼 문화비평상 미술비평 부문에 당선되었고, 2017 년 제 2 회 SeMA—하나 평론상을 수상했다. 공저로는 『감염병과 인문학』(2014), 『메타유니버스—2000 년대 한국미술의 세대, 지역, 공간, 매체』(2015), 『한국의 논점 2017』(2016), 『퀴어미술대담』(2024) 등이 있다. 현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이며 HIV/AIDS, 소수자 난민, 퀴어 팔레스타인 운동 등에 참여한다.

양승욱 YANG Seungwook

양승욱은 사진을 중심으로 장난감, 오브제, 설치, 진(zine)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한 이미지와 사물의 의미를 탐구해왔다. 기억, 소비, 욕망, 사회적 사건과 개인의 관계를 다뤄왔으며, 최근에는 사진이라는 매체의 작동 방식과 퀴어한 감각에 대한 탐구로 작업을 확장하고 있다. 전시와 출판, 진 제작 및 콜렉티브 활동을 병행하며 이미지와 사물이 새로운 맥락에서 읽히고 공유되는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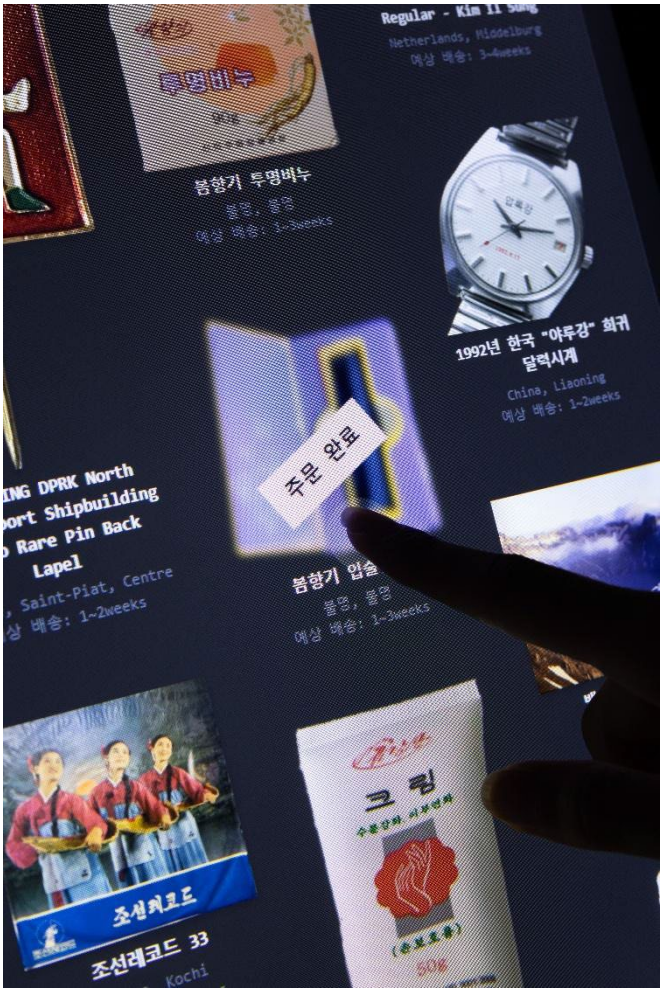
《Gift-Fluid》 전시 전경
2026.4.17.-5.17. 미학관

서동진 SEO Dongjin

문화평론가이자 계원대학교 융합예술학과 교수이다. 시각예술과 자본주의의 문화/경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글쓰기를 하고 있다. 저서로 『자유의 의지 자기 개발의 의지』, 『동시대 이후: 시간-경험-이미지』 등이 있다.

반재하 BAN Jaeha

반재하는 유통, 기술, 분단의 흔적을 리서치하고,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지점을 퍼포먼스, 설치, 영상으로 다뤄왔다.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전 《모퉁이를 돌면 거짓 친구》(NC 문화재단 스튜디오 화이트, 2026)를 열었고, 《Echoes of Tumult》(Kunstraum Kreuzberg/Bethanien, 2026), 《날짜변경선》(미학관, 2026) 등에 참여했으며 다원예술공연 〈메이크 홈, 스위트 홈〉(두산아트센터 Space111, 2024)을 선보였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입주 작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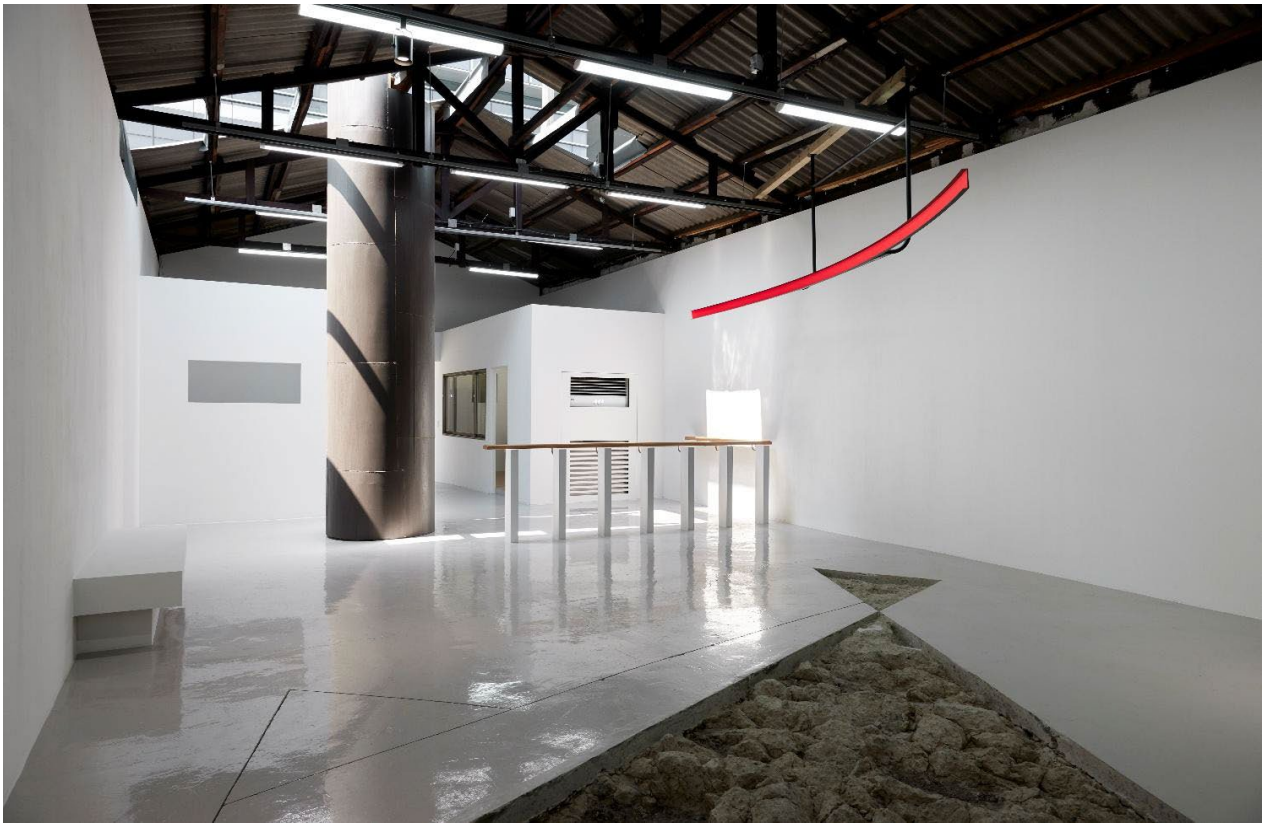
〈부재시 픽션은 문 앞에 놔주세요〉(2025/2026) 스틸 이미지
키오스크, 영수증 프린터, 선반, 배송 추적 시스템, 배송된 물품, 가변크기

윤원화 YOON Wonhwa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각문화 연구자, 비평가, 번역자다. 저서로 『껍질 이야기, 또는 미술의 불완전성에 관하여』, 『그림 창문 거울』, 『1002 번째 밤: 2010 년대 서울의 미술들』 등이 있다. 부산비엔날레 2022 에서 온라인 저널 『땅이 출렁일 때』를 편집했고,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에서 〈부드러운 지점들〉을 공동 제작했다.

김동희 KIM Donghee

김동희는 공간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와 그 관계에 주목하며, 구조가 성립하고 작동하는 조건을 탐구해 왔다. 2010 년대 초반 도시의 틈새 공간을 발견하고 이를 임시적인 플랫폼으로 전환했던 관심은 이후 기존 공간의 구조와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개입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그간 축적해 온 작업의 도면과 구조, 주변 환경의 가변적 요소 등을 조합하여, 관람객의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 공간이 다르게 경험되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 《다시 도착한 집》(운경고택, 2026), 《Hide Edges》(YPC SPACE, 2025), 《Hall 2》(Hall 1, 2023) 등이 있다.



《Hall 2》 전시 전경
2023. 4. 27. – 5. 28. Hall1
사진: 김상태, 제공: 프랍서울

이혜인 LEE Hyein

이혜인은 특정 장소에서의 장기적인 체류와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되고 변형되는 감각과 기억이 회화적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탐구해 왔다. 2010 년대부터 실제 장소에 머물며 빛과 기온, 시간, 우연한 사건과 풍경의 변화 등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구상과 추상을 오가는 회화의 언어로 전환해 왔다. 2022 년부터는 작업 환경을 야외에서 실내로 옮겨, 특정 장소에서 축적된 감각과 기억을 재구성하며 장소의 재현을 넘어 그것이 새로운 회화적 공간으로 변형되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실재적 경험을 기반한 빛과 움직임, 장소의 변화를 회화적 몸짓의 중첩을 통해 형성되는 화면은 서로 다른 시간과 기억, 감각의 층위가 만나고 변형되는 장으로 기능한다.

정주원 JEONG Juwon

정주원은 회화와 드로잉을 기반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접촉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의 모양과 형태를 물질적 그리기로 풀어낸다. 개인전으로 《핀볼 기계 작동법》(WWNN, 2024), 《Split Ends and Drilling Machines》(HIGH ART, 2024)을 개최했으며, 2 인전 《획, 세포, 그리고 유령》(Gallery SP, 2026), 《피노키오의 코끝》(Hall 1, 2024) 등에 참여했다. 《뱃속 뱃속 배》(오시선, 2026), 《Total Shit Show 25'》(PCO, 2025), 《Open Corridor》(Interim, 2024)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쓰레기 활송 장치 Trash-chute〉(2026)
린넨에 유채, 130×162cm

최태훈 CHOI Taehoon

최태훈은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에서 수학했다. 개인전으로 《톤》/《필드》(P21, 2023), 《우드타입》(GCS, 2022), 《살(SAL)》(오시선, 2021), 《자소상》(탈영역우정국, 2020), 《남한 앙상블》(SeMA 창고, 2019), 《형태는 형태를 따른다》(스튜디오 148, 2018)를 선보였고, 《집(ZIP)》(아르코 미술관, 2024), 《오시》(오시선, 2023), 《Heavy Habit》(난지창작스튜디오, 2014) 등을 총괄 기획했다.

이예원 LEE Yewon

이예원은 철을 자르고 용접하고 압착하는 과정에서 강함과 취약함, 공격과 방어가 한 몸 안에서 교차하는 상태를 탐구한다. 형태를 갖추었던 조각은 다시 변형되며 다른 몸으로 이행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를 졸업하고 현재 인터미디어 전문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손톱들》(팩토리 2, 2026) 《파라-포밍》(YPC SPACE, 2026), 《pooloopooloop》(씨스퀘어, 2025), 《뉴 NEW》(아트스페이스 3, 2025)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MORPHO〉(2022-2026)
철판, 락카 스프레이, 654×141×259(h)cm

황재민 HWANG Jaemin

미술평론가. 웹진 abs 를 공동 운영한다. 동시대 한국 회화, 일상적 정동, 알고리즘적 통치성, 미디어의 원소성, 솔라펑크에 대해 썼다. 『호버링 텍스트』(2018)를 공동 편집했고, 『리나 스폴링스』(2025)를 공동 번역했다.

최미애 CHOI Miae

화사하고 여성스러운 꽃과 들풀 등 자연의 소재를 주로 그리되, 자연에서 그대로 온 것처럼 유연하고 자유분방한 선을 쓴다. 채도가 높고 맑은 색채, 특유의 서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미애 작가의 그림은 보편적인 감성에 어필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서슴없는 붓터치와 왕성한 작품력은 미애 작가의 씩씩하고 밝은 품성이 반영된 특장점이다.
(작가 소개: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예손 제공)

〈수채화 느낌〉(2011)
종이에 수채, 25.5×36cm

[첨부] 3. 전시 포스터 (이미지 파일 별첨)

이미지: 《Problems In Need》 전시 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YY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홍보 목적으로만 전시 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 출품작 및 대표작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qm13jWqUz928qSD8lyB3CQFDzLuQSsqV?usp=sharing

- 전시 전경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Y46dftBwCF-8E2lAuYXhBYtbsi6hBpQz?usp=sharing

- 전시 전경 및 작품 이미지를 보도용으로 사용시 다음의 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제공 뮤지엄헤드 & 작가, 촬영: CJY ART Studio (조준용)
Image courtesy of the Artists & Museumhead, Photo by CJY ART Studio

뮤지엄헤드 Museumhead
주　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 층
운영시간: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문　의: museumhead.seoul.team@gmail.com